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서명운동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월성1호기 폐로,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1,2호기, 신고리5,6호기 건설 전면중단,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 핵발전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수립

△ 4대강 16개 보 재점검, 하천복원 방안 수립, 공원일몰제 근본적 개선

△ 세월호 특별법 재가동, 사고 관련 책임자 문책,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3월 10일 현재 반핵의사회는 비회원 포함 58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은 주변분과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4월 2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됩니다.

☢ 95,000원으로 우리집 태양광 발전기 신청하세요 ~

서울시의 원전 줄이기 사업으로,

한 가구당 1개를 지원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모두 가능)

주택은 물론 아파트 앞 베란다에 설치하면 전기제품 등을 전기세 저렴하게 사용 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핵발전소를 사라지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615,000원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95,000원에 설치해 드립니다.

(서울시가 415,000원, 자치구가 10만원을 지원함. 5만원을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음)

가능하면 가까이 사는 5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더욱 좋습니다.

+++++

가정 태양광 발전의 혜택

+++++

- 원자력 발전소 없는 나라 만들기에 기여함
- 매월 5,000~10,000원의 전기료를 절약함
- 소나무 562그루를 심는 효과
- 에어컨이나 전기담요 많이 사용할 때 가산세를 잡아줌
- 70,000~80,000 쓰시는 가정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됨

♣ 각 구청마다 100~400가구를 지원하다 보니 **선착순**입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문의 및 신청 (녹색드림 협동조합) : 1600-9652 / 010-8247-0013(정현덕)

♣ 관련내용 더 보기 : <http://blog.naver.com/green-solar/220941979463>
<http://blog.naver.com/green-solar/220945982229>

<기자회견>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촉구 - 2017.2.15.

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세미나> 파이로프로세싱의 허와 실 - 2017.2.28.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고 있어, 핵재처리실험(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보도 동영상) '파이로프로세싱의 허와 실' 세미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안전보장 안 된 위험한 연구.. 전 세계 여러 국가가 포기' (2017.2.28. CMB 케이블)

: <https://www.youtube.com/watch?v=rPGyNUFLh4k>

* "파이로프로세싱, 천문학적 비용에 독성 물질 등 새 위험만 가중" (2017.2.28. 뉴스1)

: <http://news1.kr/articles/?2924076>

* '파이로프로세싱' 득 없고 무의미·위험하다 주장 (2017.3.1. 시사터치)

: <http://m.sisatouch.com/mview.php?num=8143>

* "한국, 비싼 돈들여 '핵연료 재처리'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방한한 미국 핵전문가 프랭크 폰히펠 (2017.3.7.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5395.html?_fr=mt2

311 나비행진 (후쿠시마 핵사고 6년, 희생자 추모 및 탈핵 염원 행진)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6년을 맞아 전국에서 탈핵 관련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반핵의사회 연대 단체)로 탈핵을 염원하는 나비행진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6주기 나비행진 (2017.3.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4866>

* '후쿠시마' 6주기 "탄핵 다음은 탈핵이다"

시민단체들 탈핵 퍼레이드..."생명 담보로 전기 쓰고 싶지는 않다" (2017.3.11. 뉴스앤조이)

: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97>

* '후쿠시마' 6주기...전국서 '탈핵' 요구 행사 잇따라 (2017.3.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47951051.HTML?input=1179m>

* [동영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탄핵 다음은 탈핵" (2017.3.11. 오마이뉴스TV)

: <https://www.youtube.com/watch?v=v-7aPOZsck8>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

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 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 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 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기를 맞아, 반핵의사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초록교육연대 등은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과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1일 1만인 선언 1차 서명 기자회견에 이어 4월 26일까지 교육.노동.종교.문화 등 각계 및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naver.me/x7TNi0uK>

<관련 내용 더 보기>

*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1차 선언했습니다.
(2017.3.13.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 <http://cafe.daum.net/nonukeprofessor/O7a2/1286>

* 차기 대선 주자들, 탈핵, 4대강 복원 등을 공약하라
지식인 등 1500여 명, 후쿠시마 6주기맞아 시국선언문 발표 (2016.3.12.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6582&CMPT_CD=SEARCH

* 4대강 복원, 탈핵 요구 1만인 서명운동 맞을랐다 (2017.3.12. 경향신문)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121735001&code=920100&med_id=khan

* [사설] 고조되는 탈핵 목소리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2017.3.12.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12000151>

선언문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대선주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상상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형언할 수 없는 실망과 자괴감, 나아가 분노의 나날이 100일을 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전원합의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여 다소나마 국민적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과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을 해

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6주기를 맞은 오늘까지도 온전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31주년을 맞는 체르노빌 사고도 마찬가지이도. 이러한 세계적인 핵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지 않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얼마나 국토를 파괴하고 못 생명을 죽여왔가?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곧 실시되는 차기 대선에 나설 여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의 원상회복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폐로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울진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영덕·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혁명적으로 수정하여 핵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시행하라.

1.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한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하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하여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라.

1.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선체를 조속히 안전하게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라.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6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각계 릴레이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1차 선언 참여자 일동(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꿈꾸는 사람들)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후쿠시마 핵 참사 6주기]암 공포에 신음...끝없는 재앙 (2017.3.10. 경남도민일보)

갑상선암·사산율·질병 급증 원전밀집 한국 추가 건설 '역행'

=> 기사 보기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2498>

* (동영상) 탈핵 로드맵 초안 공개...10개 단기과제, 5개 중장기과제 제시(2017.3. 카톨릭뉴스)

탈핵 진영, 탈핵 로드맵 초안 마련..."차기 대통령 탈핵 선언해야"

=>기사보기 : 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php?cid=673757&path=201703

=> 자료집 다운받기 : <http://energyjustice.kr/zbxe/642917#0>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http://www.nonukesnews.kr/>

2017년 2월 회비 내주신 분들 (등록 회원 80명 중 76명 납부/ 총 입금액 : 1,495,000원)

고경심 고영훈 곽성순 권성실 권진욱 김건우 김규연 김기락 김동은 김미정 김병준 김봉구 김성아
김용진 김의동 김익중 김일희 김정범 김정은 김진국 김태겸 김현정 김형성 나백주 나준식 노완호
리병도 박강서 박용 박정하 박태식 백도명 백한주 성창기 송관욱 송재석 송준미 송학선 송홍석
신경목 신운 신형근 심재식 양길승 우석균 이강주 이상윤 이석주 이선장 이의철 이인동 이종우
이화영 임동진 임상혁 임선희 장호균 장호종 전민용 전진한 전희선 정갑천 정성훈 정세환 정영진
정일용 정태환 조규석 조병준 주영수 채민석 채운태 최규진 최영아 최용준 한영철

* 회비 출금일은 매달 27일이며 미출금시 다음 달 5일, 7일 재출금 됩니다.

* 명단 누락 및 수정, 회비 관련 문의 : 010-2807-4317(천은아 간사)

♣ **핵없는 세상, 함께 할 벗을 기다립니다. 주변에 반핵의사회를 알려주세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반핵의사회**(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는
보건의료인, 시민, 학생 등 **핵없는 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주변에 추천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원가입신청서와 출금동의서만 보내주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 정보통신법 규정에 따라 "출금 동의서(자필서명 필수)"를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 및 출금동의서 다운받기**

=> <http://nonukes.or.kr/qksgor/wp-content/plugins/allow-l10n-upload-filename/download.php?id=2467>

-> 작성하신 후 스캔해서 이메일(nonukes@nonukes.or.kr.)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